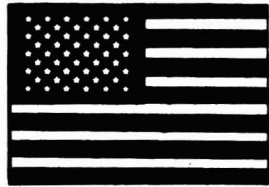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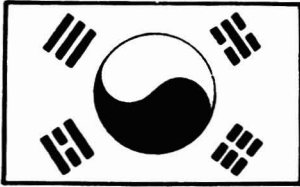


---

Published by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24992, Seattle, Washington 98134

Ke-Hi Oh - Publisher  
Sung-Hwi Pak - Editor  
(206) 362-4500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6·7

---





# 한인회보

## 목차 (CONTENTS)

- 4. 역대 한인회장 회고 -제 2대 한인회장-
- 6. 역대 한인회장 회고 -제 3대 한인회장-
- 7. 미국 사회내에서 우리의 한인
- 9. "84 Camp Casey Camp"
- 11. Camp Casey 청소년 야영 제정 보고
- 12. Camp Casey 사진 보고
- 13. 84년도 "한인 주소록" 발간 협조 요망
- 14. 84년도 한인회비 내신 분들
- 17. 상점내에서 알아 두어야 상식
- 18.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할까?
- 19. 비자의 종류와 변경방법은? 법
- 20. 교포사회 소식 및 동경  
    스칸토 회사 장학금 마련

- 광복절 기념 행사
- 시애틀 한인 교회 연합회 역원 개편
- 시애틀 타코마 뱅쿠버 천선 자유회
- 해양대학 실습선 방문
- 대한선주 운항 증가
- U. Village 꽃집
- U. W. 한국 학생회 소식
- 22. 가정 및 거리에서의 안전
- 28. 치과의사에게 문의 하세요
- 29. Youth Column
- 34. 영문 페이지  
    "A Call For Historical  
    Society Of Koreans"  
    - Chang Hei Lee -



# 영미정

한국 최고의 궁중요리사  
드디어 영미정 주방에  
초빙되었음.

대표 조 영

84년1월1일부터

### 일본식 요리 기사

○ 최신식 완전 자동냉면기계 설비

○ 대 연회장 완비

○ 넓은 주차장 시설

## (씨애틀 최대 규모와 격조높은 나이트 클럽)

### ★로스엔젤레스에서 대인기를 모은

### 대형가수 문희진양 출연★

※ 가족회식 ※ 친목회식 ※ 귀한손님접대 ※ 축하연동  
모임에 따라

10명에서 150명 400명 까지

한자리에 모실수 있습니다

## YOUNG ME RESTAURANT

### 623-3112

220 4th Ave So Seattle, WA 98104

7 DAYS A WEEK 11:00 AM 2:00 AM

### ◎ 순 한국식 중화요리

## 四川飯店

- 일류 요리사의 순 한국식 진미 요리로써  
성실껏 한인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 짜장면, 팔복, 군만두, 양장피잡채,  
팔보채, 팔수육, 라조기, 해삼탕, 불고기  
기타 각종요리

■ Lunch Special \$3.25

■ 김치 무료제공

영업시간

화~목 11:30~10:30

금~일 12:00~11:00

● 월요일은 쉽니다.

★ TO-GO도 합니다.

14814 15th Ave NE SEATTLE

전화 365-9174

### 제일 음악 학원

- 씨애틀 최초로 개원, 신직원 10명 1개월  
무료지도 (월 4회)!! 사내 교육?
- 피아노, 각종악기, 상악개인지도.
- 신인키타-초보자 단기완성
- 생활음악, 복음성가, 교회 찬송가를 위한  
특별지도
- 완벽한 지도와 유능한 교수진(합·미인)
- 수강지도, 교통 편의 가능성.

367-2273 (FUR LANE)

3102 NE 145 St. Seattle, WA 98155

### 자니전파사

비디오 TV 시계 카메라

### 전문수리

전화 241-5144

(현대식품 옆)

# 역대한인회장 회고

## 한인회 창립기(記)



제2대씨애틀한인회장 이 선 부

내가 뉴욕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사온 것은 이곳에서 열렸던 국제박람회 직후인 1962년이였다. 그때는 프리웨이 I-5 가 건설중이었고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99번 도로를 이용하여야 했던 시절이다. 씨애틀 다운타운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스미스타워" 정도였고 식품사업으로 유명해진 "우와지마야"도 지금의 영미점 뒷쪽에서 경영되던 작은 구멍가게에 불과 하였다. 교포 업체로서는 기껏 씨애틀 센터에 선물 가게가 하나 있었고 워싱턴 대학가에 고려정이라는 식당이 있었을 따름이다. (이 식당은 바이얼린 연주자로 유명한 정경화 부모들이 경영을 했음) 그러니 그때의 한인 커뮤니티란 워싱턴 대학에 공부하는 30-40명 정도의 학생들과 직장 생활을 하는 30쯤의 교포가정이 전부였다. 이 당시 1년에 한두번씩 모이는 학생들의 모임에 일반 교포들도 함께 참여 하였다.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 되었으나 일반교포들도 학생 간부 선출에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었으니 이때를 학생,교포가 함께하던 공동회(大同會)시대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동이 심하고 이곳에 정착하는 일반 교포의수는 날로 증가되어 샌프란시스코 주재 정도순 총영사는 교포중심의 한인회 조직을 여러번 권유, 부탁하여 왔다. 나는 미니호텔(지금의 University Tower Hotel)에 회의장을 마련하고 교포사회의 중심 인물들에게 연락 회동 계획하는 일을 맡았다. 그때 모인 분으로는 돌아가신 이창희, 정춘채 선생님들과 서두수, 전계상, 안병영, 남궁모세, 이현기, 홍영식, 김홍식등 여러분들과 필자 이었다고 기억이 된다. 이분들은 한인회 조직에 적극찬동 추진하여 워싱턴대학 학생회관에서 역사적인 창립총회와 기념식을 가지게 되었다. 아마도 이때가 1966년 이라고 기억된다. 미국정부로부터 전우함 "충남호"를 인수받으러 이곳에온 정도순 총영사가 축사를 하였고 돌아가신 이창희 선생을 역사적인 초대회장으로 선출 하였는데 이로써 나의 한인회 조직 산파의 역할은 마치게 된 셈이다.

초대회장 이창희 선생(1906-1979)은 인자하여 만인의 존경을 받는 어른이었다. 일찍 연희전문(지금의 연세대학교)을 거쳐 1930년에 도미 하시었다. 밴더빌트(베네시)대학등에서 신학과 화학을 전공 학사, 석사를 획득하신 초기 미주한인 사회의 학인(學人) 가운데 한분이시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세계 제2차대전 말기에는 일제로부터 조국을 해방시키고 저 스스로 미군에 지원, 인도를 거쳐 중국전선으로 가신분이다. 중국 서안(西安)에 있던 이범석 장군을 비롯 여러 독립군 지도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은후 이들과 국내침투, 항일전을 계획하고 수행하려던 순간 해방을 맞으신 독립투사이시다.

이 어른을 뒤이어 나는 두번째 한인회 회장직을 맡게 되었는데 본인으로써는 송구스러운 말이 되겠으나 여러분들이 한인회 조직과 창립의 산파의 노고를 높이샤주신 것이라고 기억된다. 함께 일하던 부회장에는 김홍식 선생이었다. 그때의 주된 행사라면 여름야유회와 크리스마스, 연말 전후에 개최되는 연말잔치를 온교포와 함께 치루는 것이었다. 그때는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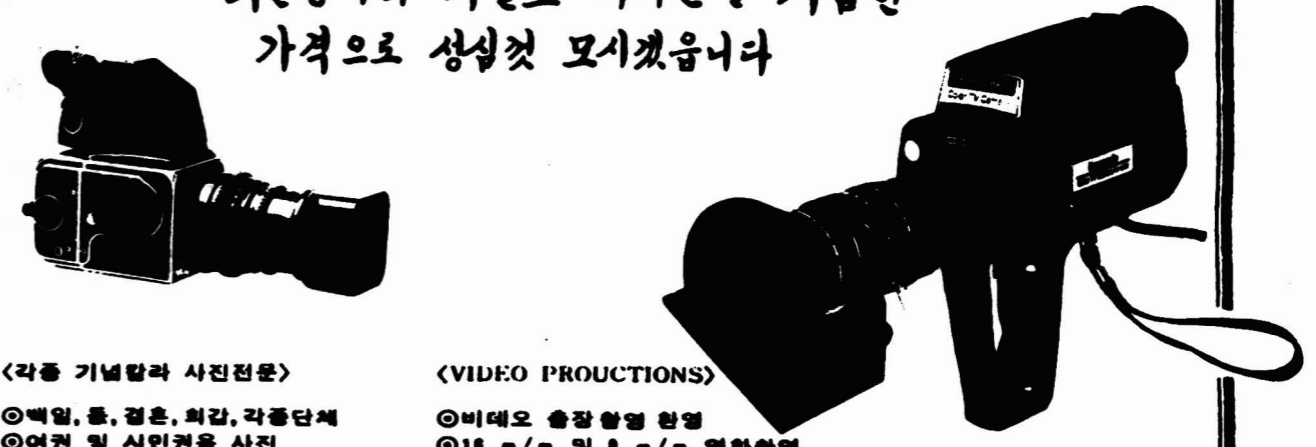
까운곳에 살거나 먼곳에 살거나간에, 온 교포들이 기다렸다는듯이 모여들어 즐겁고 뜨거운 동포애의 야유회였고 잔치이었다. 영사관이 없던 그시절에는 그국이나 다른지역에서 이곳을 방문한 분들을 접대, 안내하는일, 이따끔 그국에서 수제가 일어나면 모금하여 과 신문사를 통하여 송금하는 일등, 당시의 한인회는 영사관의 역할까지도 담당하던 시대라고 할까?

프랑스의 철인 데카르트(Descartes)의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난다. 어떤이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메는 이야기다. 해는 저서 어두운밤, 그는 집으로 가기위해 이리저리 방황한다. 이 길에서 절벽을 만나 되돌아오고, 저 길에서 가시뿔뿔을 만나 되돌아 오곤하는 방향속의 초조와 불안의 인간을 논한 것이다. 어두움속에서 더해만가는 초조와 불안을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어느 한길을 택하였으면 어떠한 장애가 앞을 막아도 그것을 뚫고 헤쳐며 즐기게 가야한다. 그러노라면 좀더 큰길, 좀더 넓은길로 이어져 집으로 돌아갈수 있게 된다고 데카르트는 결론 내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 한인회도 많은 발전을 해왔다. 인생이건 사회단체이건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경건한 태도로 한결음, 한결음씩 즐기게 내어 더될때 발전과 성장이 있는것이다. 초창기 한인회의 본명한 목표 "안으로 회원 사이의 융화, 친목, 단결, 그리고 밖으로는 한인들의 성실과 올바른 삶의 자세를 보임으로 지위를 향상 시키는것"을 향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하여 나갈때 성공하는 한인교포 단체가 될것이다. 바삐 뛰어 다니던 그시절, 그때의 우리 교포들의 "가족스러움" 과 "하나스러움" 을 나는 끝내 끝내 잊지못할 것이다.

# KO'S 사진관 & VIDEO

최신장비와 기술로 여러분을 저렴한 가격으로 섬길것 모시겠습니다



<각종 기념할라 사진전문>

- ◎백일, 돌, 결혼, 회갑, 각종단체
- ◎여권 및 시민권을 사진
- ◎필름현상 및 인화
- ◎출장 촬영 촬영

<VIDEO PRODUCTIONS>

- ◎비디오 출장 촬영 촬영
- ◎16 mm 및 8 mm 영화촬영
- ◎비디오 테이프 편집 영상, 음향, 제작, 카피
- ◎한국영화, 비디오 카셀 테이프 대여

전화 (206) 775-0896 대표 고 광 준

4812 225th Pl SW Mountlake Terrace, WA 98043

## 역대 한인회장 회고

제3대 씨애틀한인회장 전 계 상



14년이란 긴 세월이다. 씨애틀 한인회가 설립된지 두돌이 지나고 3년이 시작되는 1970년 1월에 나는 회장으로써 한인회의 일을 맡아보기로 했다. 그때 같이 임원으로 선출된분은 부회장에 김덕환, 총무진에 김홍식, 이선복, 회계에 이현기 제시였다. 그때의 회고록을 하나 적어보라는 한인회의 부락을 거절하지 못하여 그때일들을 여기 기억나는대로 적어 보기로 한다.

14년전의 씨애틀의 한인사회는 지금의 그것과는 판연히 달랐다. 그때 씨애틀 근처의 한인사회는 세단체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볼수있다. 첫째, University of Washington을 중심으로한 학생 5-60명 둘째, 미국에 학생 혹은 여행왔다 영주하게된 교포들 100여가족, 셋째로 라코마에 국제결혼을 통해와있는 군인부인들과 거기에 속한 동포들해서 총계 4-500명에 불과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사람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미국사회 각처에 여기저기에 끼어 살어 서로 연락없이 자기생계와 생활기반을 세우는데 분주히 그리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었는듯 싶다. 그러한중 어느시점에 교포의 총수가 어느한도를 넘은 자연의 결과로 한인회라는 모임을 가질 계획을 세우게 된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같이 따지면은 그 초창기에는 한인회는 학생회 혹은 교회와(Vancouver, B.C.의 경우)근밀한 접촉이 있었던 이유를 알수가 있다. 년중 가정 행사로 가졌던 3.1절, 8.15 퍼크닉, 10.3개천절, 12월 총회, 아리랑나이트등은 따라서 한인회, 학생회 공동으로 주최하는것이 보통이었고 장소도 University of Washington내에서 학생회를 통해서 빌리는수가 많았다. 지금도 재미있게 기억나는것은 3.1절의 독립선언서 읽기, 퍼크닉때 한인회대 학생회 배구시합, 아리랑나이트의 댄스파티등이다. 독립선언서(원문)는 어려운 한문이 섞여서 연습을 많이해도 읽는데 한시간이 걸리는듯했고 운동경기, 댄스파티등은 식구가 단출해서 서로 잘알기 때문에 딱 재미가 있었다고 느껴진다.

밴쿠버, 씨애틀 한인회 사이의 합동경기회에 관해서도 흥미있게 추억나는것들이 많다. 1970년은 이 합동경기가 씨애틀에서 개최되고 그전해에 여러가지 경기에 밴쿠버팀한테 졌기 때문에 1970년도에는 씨애틀 한인회측의 운동실상은 광장했다. 경기중에 가장 인기였던 배구시합때는 양쪽에서 응원단까지 조직되어 맹렬한 응원까지 하게되어 그날 장내는 흥분에 가득 찼었다.

총회 임원선거는 항상 임원에 출마하는 사람이없어 두툽이었고 더구나 회장은 한인회 존속을위해여러가지로 애걸 간청을 해야 겨우 한사람이 나서는 형편이었으니 지금과는 딱 다르다고 할수있겠다. 십여년 동안에 씨애틀의 한인사회는 그 구성인원, 그 크기등이 어지없이 달라졌다. 따라서 한인사회가 한인회에 요구하는것도 훨씬 달라졌다. 규모가적고 단출했던 예전 한인회가 그림계 추억될때가있지마는 새시대 새요구에는 새로운 한인회가 필요하다는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지.

## 미국 사회내에서의 우리의 할일

제가 미국 서북부의 이곳 씨애틀에 부임한지도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민사회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고있는 어리고민들을 보면서 저대로 느낀 박를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 한국인은 우수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민족으로 비록 미국내의 한국인은 소수민족의 하나이지만 이곳 이민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여야 할일이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진적 사고방식을 갖자는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구태의연하여 호착민인 미국인으로부러지판을 받아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유한 미풍양속은 공저로서 갖되 선진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중 좋은것은 택하여 우리것으로 만들므로써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인"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생활 주변에 이력한것이 많습디만 우선 들수 있는것으로 시간을 지키는것, 남을 방문할때나 전화할때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가능한한 약속을 먼저 한다든가 남의 좋은일에 축하를 빙자하여 한턱을 얻어 먹거나 자기가 할수있는것을 남에게 미는것 등의 폐습은 우리생활에서 몰아내야 할 폐습입니다.

둘째, 우리는 이 좋은곳에 살면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디다.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생활여건하에서 사는 우리는 이러한 좋은여건에 살게된것은 무언가 주어진 "사명감"이 있다고 깨달어 알아야 할것입니다. 저는 여러가지 사명이나 "해야 할일"중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제2세의 교육과 연로자의 보살핌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들 고민들은 어러사람들 중에서 뽑혀서 그 어려운 수속을 거쳐 이 좋은곳에 와서 살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가 바쁘게 일하고 있는동안 잘못하면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 어버이들을 잇을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모처럼 고향산천을 등지고 온 우리의 어버이들이 이민생활의 외로움으로 향수병에 들어있고 우리2세대들은 이곳 미국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억으로 미국생활에 져어 우리고유의 전통을 저버리고 있어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증차대합니다. 일컬어 "망국세대"가 되기 쉬운 위험이 있습니다.

주 씨애틀 총영사

안 세 훈



니다. 우리의 바른 일과를 조개어 2세의 교육이나 생활지도에 더힘을 경주하며 연로자가 느끼기 쉬운 소외감 또는 고독을 없애 주도록 주변생활의 원활화에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점에서는 한인회라든가, 교회활동 등 각종 모임에 참여하여 다같이 "은명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가야 할것입니다.

셋째는, 좋은 시민이 되자는것입니다. 우리 교민이 미국 국적을 가졌건, 계속 한국 국적을 가졌건 이 자유로운 민주사회에서 모범이되는 시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미국은 국호가 명시하듯, 다수민족이 모인 "합중국"임으로 이 사회에 사는 우리 한국인은 소수민족으로서 문제를 일으키느니 보다는 소수민족으로 미국의 국법을 성실히 준수하는 시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은 정착후 생활이 안정되어도 호착사회에 아무러한 기여를 하지않고 자기 충족에만 끝인다하여 비난의 대상이되고 심한 경우에는 흑인등 호착민으로부터 폭행등을 당하고있는 사례가 있는바, 남에 의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커뮤니티"를 위하여 헌금 등 직접봉사의 참여 활동으로 우리에게 종래 호착민이 가진 편견 또는 비난을 없애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넷째로는, 우리가 어떤조직이나 단체를 가지든 한인회를 중심으로 혼연일체 단결하여 나갈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민사회에는 여러가지 단체가 많은바, 이 모든 단체가 한인회를 중심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갈때 우리민족간의 화합을 이루고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기대할수 있을것입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는 말과같이 우리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민사회에서 조용하고, 좋은 시민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나감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좋

은 가정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자랑스러운 한국  
인"의 이미지를 부각 시킴이 기대되는 일이라 하  
겠습니다.

우리 총영사관은 대한민국을 대표 하고 여러분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되고, 우리 공관원은 이일을 위

하여 와서 있는것임으로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와  
협조할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은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다복 하심을 바  
라합니다.

1984년 7월

주 시애틀 총영사 안 세 훈

## 50년 전통의 Snohomish Bakery



※ 생일 ※ 결혼 ※ 회갑 ※ 축하케익 ※ 무료배달  
※ 다과 ※ 도나스 ※ 단체주문배수

스노호미쉬 (206) 568-2020  
에버렛 (206) 258-1444

Snohomish, WA. 98290

## 로명재 산부인과 美 산부인과 학회 인정 전문의

- 임신·분만
- 피임상담
- 복강경 피임수술
- 전문 (13년의 경험)
- 각종 부인병수술
- 일반 부인병진료
- 불임조사 및
- 불임증 치료
- 질 성형수술
- Sexual counseling

Auburn office

Federal way office

**833-2580 927-8440**

## "84 CAMP CASEY" CAMP

지도 하신분들 : 책임 지도 윤홍남 선생 (한인회 청년부장)  
전강 담당 노계순 선생 (Harbaview 근무)  
김혜경 선생 (시카고 대 대학원생)  
이호선 선생 (서울대 대학원생)  
박영도 선생 (코넬대 Senior)  
김세만 선생 (제일음악학원장)  
박재호 선생 (U.W. 대학생)  
재정과공급 최학기 선생 (한인회 재무)

### 작 담 회

### 사회 : 윤홍남 청년부장

사회:한인회로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amping 을 실시 하였는데 행사에  
대한 의의를 어떻게 말할수 있을지요?

윤 : 이번 Camp 는 한국학생에게 대체로 두가지 큰 의의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한국인  
이 미국사회에서 연만히 살기 위하여는 메조리리가되는 언어를 하는 배인사회에서 살  
줄도 알아야 하지만 한국인만의 사회에서 생활하는 경험도 가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기회에 이것이 어떤것이여 어떠한 의의가 있나를 체험하여 본것에 첫  
째 의의를 두겠고 다음으로는 소속감의 의의입니다. 한국학생들이 같은 소속감을 느  
끼는 어떤단체를 가지고 있다는 체험은 그들의 정신적 안전과 개인적인 성장 및 사회  
에 살아가는 효율성에 큰영향을 주지않나 싶습니다. 그들이 한인 Community 에 깊은  
소속감을 갖었다는 중요한 경험이 될때의 의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 : 서로 모르는 학생들끼리 한국에서 자고,먹고,경기를 함으로서 서로간의 교제를 할수  
있으며 자기자신을 발견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이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생각 하시는지요?

이 : 부모님들이 자녀에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동점을 가진 한인  
청소년들이 대학의 공동 Ground 를 인식 하였던것 같습니다.

사회:음악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한국인이 주최하는 Camping 을 참가 함으로써 더욱 보람된  
시간이 된것을 믿습니다. 아울러 정신적,사회적으로 각 개인의 성숙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치루면서 느꼈지만 학생들의 한국말에대한것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학생과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간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느꼈습니다. 여기서 자란 청소년은 영문은 한국인이지만 생각하는것은 미국식  
이었음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의 행동을 지냈어도 미국서 태어난 청소년과 한국에  
서 같은 청소년들간에는 이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것을 느꼈습니다.

박 : 이곳서 자란 청소년들에게는 분명히 한국어 Second Language 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를 편하게 생각 하더군요. 우리가 미국사회에 속하려면 영어를 우선으  
로 사용하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어를 사용하는것이 좋은 Communication  
이 되는것 같습니다.

사회: 이번 Camping 을 치루면서 강하게 느낀것인데 반드시 이증언어를 구사하여야 청소년들과 함께 대화할수있고 그들을 이해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남학생과 여학생들간의 사이가 청소년들은 미국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1세 부모님들은 한국식으로, 학생들은 미국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조화를 찾아 잘 지도해야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회: 이번행사가 한인회로서는 처음인 행사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행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기록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은: 얼마나 많은 학생이 참가 할것인가가 문제로 지적될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초에는 십게 100명이상이 올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에대한 반응은 부모님들의 한인회 Camping 에대한 인식이 덜했던것 같았습니다. 행사 자체는 좋았고 Positive Experience 을 부여하는 기회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충분히 인식되도록 다음에 계획할 경우에는 적어도 3달전부터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박: 다음 기획에는 충분한 홍보활동으로 참가자 명단 작성이 적어도 일주일전에는 완전히 끝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청을 받았는데 결국 형제 또는 자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간의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것과 또는 친한 친구들간에 같이 있어서 한점을 들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개의 팀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고자 하였는데 Age Group 의 차이가 커서 팀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 팀조직은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프로그램으로, 중학생은 중학생들로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체인원이 참가할수있는 Program 도 준비해야지요.

사회: 교육적인 팀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국의 산 이름을 팀명칭으로 결정하고 실시했는데 여기에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들이 중국에 무슨 산에 관하여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듯이 학생들도 한국산 이름에 대하여 쉽게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못 하더군요 계획의도는 좋았으나 학생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회: Camp Casey Facility 는 대체로 좋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박: 한방 (Room) 에 2명씩 자도록 되어있어 학생들은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단 단체행동을 위한 훈련시는 open room 이 더 좋았을것 같습니다.

이: 실내체육관과 강당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비가 왔는데도 무난히 저희가 계획했던것을 할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박: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한 피구나 농구, 탁구 게임은 더욱 좋은시간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학생들이 더 있고 싶어 하더군요.

사회: Program 에 대해서 지적될것이 있다면 무엇을 들수 있을까요?

박: 태권도시범, 영화, 경기, 수영, 장기자랑 등은 다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안세훈 총영사님과 함께한 축구는 학생들이 다함께 뛰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의에서 학생들의 이해력 부족으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Camp Fire 시간에 비가오는 관계로 약간의 차질이 있었던것으로 여겨집니다. 자유시간을 허락하니 학생들 이 Break Dance 와 힙합춤을 추더군요. 학생들은 좀더 자유시간을 원했고 자유시간에 이들은 춤을 추기를 원했습니다.

사회: 이번 행사를 보내면서 아쉬운것은 더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아쉬웠습니다.

회: Camp Casey 행사 총 경비는 \$4,147.41 이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부담한 경비는 \$1,860.00 이었으며 \$2,287.00은 한인회가 제공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CAMP CASEY 청소년 야영 재정보고

수 입 (계원)	지 출 항목
참가학생회비 62x30 \$1,860.00	왕복 Bus 대절비 \$ 560.00
부인 Group 기부금 \$ 445.00	왕복 Ferry 대금 121.36
한인회 재정부원금 \$1,842.41	Camp Casey 2박3일 숙박 5끼 식사 2,748.60
	상품 및 간호준비 445.00
	비품대금
	학생용 간식대금 272.45
	바나나 90LBS
	수박 380LBS
	핫도그 12Doz
	초코렛 14Doz
	과일파이 14Doz
<b>총 계 \$4,147.41</b>	<b>총 계 \$4,147.41</b>

Camp 야영 기간중 시애틀 총영사관에서 오렌지 및 사과 각 2Box 씩과 수박을 보내 주셨습니다.

#### 홍인표 신경·정신과 전문의

901 BOREN AVE.  
CABRINI TOWER #707  
(206) 587-5747, 587-3748



꽃 보다 더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모든 예경사에 전화만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꽃에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디모인스꽃집 824-5920, 밤 243-5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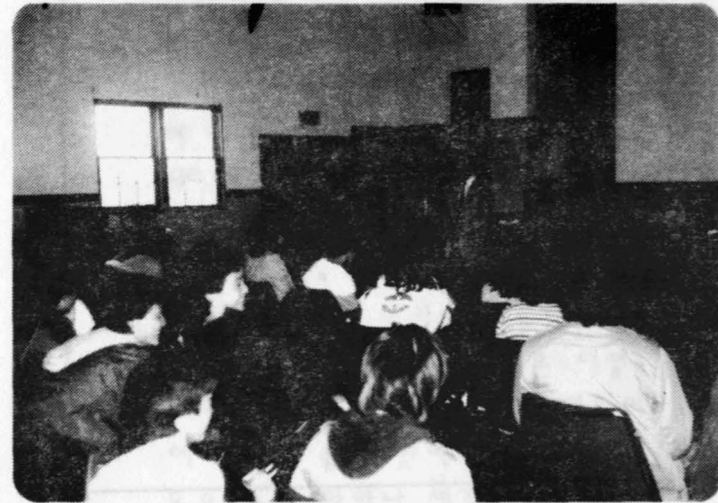
CAMP CASEY CAMP의 이모저모



옥외 자연의 답사



실내 오락



유명 강사 강연



수영과 단련

신호범 박사 강연회

중공, 몽고 방문기

금번 중공과 몽고를 방문한 신호범 박사께서 강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곳의 정치, 경제, 문화와 국제관계에 관한 유익한 강연이 있을 것이며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일시: 1984년 8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 9:30

장소: 현 한인회관

시애틀 한인 교회 연합회

역원개편

금번 시애틀 한인 교회 연합회는 총회를 열고 다음과 같이 역원을 개편하였다. 회장에 정연발 목사(시애틀 한인 중앙 장로 교회 시무) 부회장에 박영희 목사, 안장로, 총무에 최태원 목사가 각각 당선되었다. 금번 첫사업으로 8월 18일(토요일)에 시내 Discovery park에서 광복절 기념 교회대항 운동경기를 가진다고 한다.

시애틀 지역 84년도 "한인주소록" 발간

교민어려분께 협조 요망

84년도 시애틀 지역 "한인주소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누락자가 없는 주소록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교민어려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지금까지 "한인회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나 근태에 시애틀 지역에 새로 이사 오신분으로서 주소와 전화번호가 각지역 전화번호부에 수록(기재)되어있지 않으신 분들은 주소와 전화번호를 한인회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전화번호 : (206) 362-4500

주소 : 2611 125th St. N. E.  
Seattle, Wa. 98125

2. 금번 주소록 정리는 기본적으로 각지역 전화번호부에 근거하여 주소록 발췌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전화번호부에 Unlist하신분들은 주소와 성명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명과 주소만 수록하고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곧 주소록 발간 요원들이 직접 전화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 하겠으니 이점 양해 하시고 정확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 가. 한국어 및 영어 이름을 구분 확인.
- 나. 부인의 이름은 원명(한국어) 확인.
- 다. 주소와 전화번호의 착오 여부 확인.

4. 84년도 "한인주소록"에 광고를 내실분들은 1984년 8월 31일까지 서면 또는 전화로 한인회에 신청하여 주십시오.

(광고 규격 및 요금)

5. 주소록의 생명은 정확도와 전체 교민들의 수록여부에 달려 있어오니 위의 4가지 사항에 교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시애틀 지역"이라 함은 다음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 (1) 시애틀시
- (2) 리치몬드비치, 쇼-라인, 에드먼드, 린우드
- (3) 에베렛
- (4) 렌튼, 어-번, 켄트, 페더럴웨이
- (5) 커크랜드, 벨뷰, 레드먼드
- (6) 켄모, 보셀

기타 문의사항 및 권유사항이 있으시면 한인회로 직접 연락하여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84년 7월 일

시애틀 한인회

### 84년도 한인회비 내신분들 (84년 7월 24일현재)

김홍식 \$20.00	이용호 20.00	허정순 \$10.00	오계희 \$20.00
김덕황 20.00	김은택 20.00	진명희 20.00	이순모 20.00
김기택 20.00	장부관 20.00	김연길 20.00	이현진 20.00
심상규 20.00	은부원 20.00	김덕근 50.00	구로버르 100.00
심종석 20.00	Ronald G. Brown 100.00	이경숙 20.00	김창환 20.00
조병규 20.00	김정부 20.00	이진 20.00	이기업 20.00
김명화 10.00	김정택 30.00	김도욱 20.00	정병국 20.00
구수암 20.00	한만섭 100.00	Chin Shook Hughes 10.00	정매인 10.00
이완택 10.00	김수정 20.00	Seung Ku Lee 20.00	Woo Kun Byunn 20.00
임병규 20.00	이석복 20.00	Yil Sung Oh 20.00	Moon G. Kim 20.00
최계순 20.00	김용준 20.00	Unche Chong 20.00	Yong Chung Kwon 30.00
오준환 15.00	Lea J. Armstrong 100.00	Kyu Ha Lee 20.00	Jung Ok Choi 10.00
홍사협 20.00	김진숙 10.00	Hong K. Kim 20.00	Dong Jo Han 20.00
유인섭 20.00	최기명 20.00	Han Z. Park 20.00	Joung Boo Kim 20.00
김준근 20.00	유래운 20.00	Young J. Lee 20.00	Jae Hui Kim 20.00
오상문 20.00	엄도승 100.00	Joon Song 20.00	Samuel Kim 20.00
은병설 20.00	민학근 10.00	허권 20.00	Sam Sook Lee 20.00
정연발 10.00	김성작 20.00	백경숙 20.00	김현중 20.00
김종연 10.00	이삼량 20.00	Kae Y. Mullins 20.00	L.E. Donna Judd 20.00
성은경 20.00	백경수 20.00	박승희 20.00	Dai Nam Bae 20.00
박영희 10.00	이호섭 20.00	최학기 20.00	Moo Yeong Kim 20.00
이창수 10.00	이신남 20.00	박태호 20.00	김기영 20.00
최태원 20.00	강동연 20.00	이정언 20.00	이선복 20.00
한상국 10.00	임초기 20.00	김경배 20.00	Dong Chin Kim 10.00
임옥란 20.00	박경준 100.00	윤흥남 20.00	이유신 20.00
김동조 \$20.00	이정길 20.00	이학유 20.00	원지준 20.00
김종철 20.00	이정언 20.00	엄도승 20.00	이종운 15.00
Stubble Field의 한 20.00	백용기 20.00	홍인표 20.00	
김영남 20.00	김상철 100.00	곽종세 20.00	
김성길 20.00	김간난 20.00	문근성 20.00	Total \$2,964.00
김형달 24.00	박춘환 20.00	박진문 20.00	
Johny Baek 20.00	임광희 20.00	신호범 20.00	
	심상국 20.00	이동립 20.00	

### 찬조금 기부자 명단

주시애를총영사관 \$700.00	오계희(한인회장) \$1,200.00	김여행사 \$100.00
이동립 100.00	이순모("부회장) 500.00	한일과신사장 400.00
홍인표 80.00	신호범("이사) 500.00	전계상 50.00
김홍식 80.00	이동립("이사) 300.00	이동립 217.00
이순모 30.00	김간난 50.00	이영주 100.00
곽종세 30.00	이현진(한인회부회장) 300.00	김현중 50.00
이현진 30.00	곽종세("이사) 200.00	곽상영 100.00
최계순 30.00	조성욱("전회장) 150.00	심상국 100.00
박건홍 20.00	김홍식(삼미사회장) 500.00	오수당 50.00
엄도승(한인회이사장) \$2,000.00	주시애를총영사관 1,000.00	엄도승 200.00
홍인표("부이사장) 1,000.00	"한국외환은행 300.00	

찬조금 Total \$10,467.00

Ground Total \$13,431.00

### 한인회 각종행사 및 운영에 찬조금 내신분

Mrs. 이동립 \$117
Dr. 이영주 100
Dr. 이동립 100
Mr. 김현중 50
Mr. 곽상영 100
Mr. 심상국 100
Dr. 엄도승 200(한바다호 환영준비에)
한일과 산용호 사장 400
Mr. 전계상 50
Mr. 오수당 50

"알림"

한인회 부녀부장 및 임원 이사부인 Group 에서 6월23일-24일에 North Gate Mall 에서 실시한 Ethnic Group 행사 음식판매 대금의 수입금 \$445 을 Camp Casey 청소년 야영의 기념품 및 준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한인회비 납부하여

한인회 활동을 도웁시다!

# 84년도 한인회비 내신분

(7월23일 도착)

Robert B. Koo	\$100	Sam Sook Lee	\$ 20
Chang Hwan Kim	20	L.E.Donna Judd	20
Ki Up Lee	20	Dai Nam Bae	20
Ke Sang Chun	50	Moo Yeong Kim	20
Woo Kun Byunn	20	Dong Chin Kim	10
Moon G. Kim	20	정 병 국	20
Yong Chung Kwon	30	정 매 인	10
Jung Ok Choi	10	김 기 영	20
Dong Jo Han	20	이 선 복	20
Joung Boo Kim	20	이 유 신	20
Samuel Kim	20	원 지 준	20
Jae Hui Kim	20	이 종 운	15

이상 24명

## 상점내에서 알아두어야 할 상식

한국사회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절차 및 방법과 이곳 미국사회에서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고민들중에는 미국 상점안에서 본의아니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언어소통의 장애등으로 인하여 정확한 설명으로 의사를 전달치 못한다면 결국은 스톨 리프팅(Shop Lifting)이라는 죄명을 쓰고 법원까지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사회 및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문제들이 심각한것입니다.

Fitzsimons 시애틀 경찰국장 및 범죄예방부 담당관 Mcelroy 씨의 말에 의하면 스톨 리프팅(Shop Lifting)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인한 상인들의 손해액수가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물론 일반상가에서도 가장 관심이 깊은 범죄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비하여 일반업계에서는 여러가지 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원(Security Guard)을 채용함으로써 필요 이외의 비용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혐의를 받게되면 상점속에서는 대부분이 사법기관에 인계하게 되며 현장에서 본인의 설명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과정을 꼭 거치게 됩니다. 사법기관을 거치는 경우 본인 이 선택한 용역원을 증거로 하여 설명을 할수 있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적잖자사 내의 랭귀이지 뱅크에 용역원 명단이 등록되어 있어서 무료로 용역원의 도움을 받을수 있으나 무료로 봉사하는 용역원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용역원을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참고 하여야 할것이라함. 한국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가 많다 함.

- (1) 아주 조그만한 물건을 들고 보다가 밖에 친구가 지나가는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좀 하려고 문을 열고 밖에 잠깐 나갔는데 그물건이 너무 작고 또 본인은 흠칠의도가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그것을 들고 문밖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그때 안전원이 와서 잡혔으며 설명할수도 없고 설명한다 하여도 입건된다는 것이다.
- (2) 작은물건을 보고 무의식중에 호주머니 같은데 넣고 본인도 모르게 다른물건은 돈을 지불하고 나오다가 안전원에게 적발된다. 일단 대금을 지불하지않고 계산창구를 통과하게되면 충분한 혐의를 받게 됩니다.
- (3) 물건을 고르다가 마침 창가로 친구가 지나가는것을 보고 그물건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문을 열고 그친구에게 보이는데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소용없이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 당국에서는 다음과같은 사항에 주의하여 주실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1) 물건을 사려고 가지고올때 보이지 않게하지 말고 누구나 다 볼수있도록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며
- (2) 물건이 적다고 호주머니 같은곳에 절대 넣지말며
- (3)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상점의 물건을 계산창구(카운터)를 통과하지 말것이며
- (4) 상점에서 넣어주는 봉지는 사양하지 말고 받아서 봉지에 넣고 다니야 계산을 하였다는 증거가 되는것입니다.

### O.K. 운전 학교

- ※ 교포가 운영하고 교포가 지도하는 운전학교
- ※ 운전 초보자에게 저렴한 교습비로 지도
- ※ 전문적인 지식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도
- ※ 최단 시일내에 운전면허증 취득
- ※ 필기 및 실기시험 100% 보장
- ※ 거리 및 지역에 제한없이 출장지도
- ※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쉽게 면허증 받을수 있음

◎ 전화 문의 및 상담 환영

운전학교: (206) 775-1588

집 : (206) 771-3680



### 조병규 치과

시애틀

월, 화, 목, 토(9시~6시)

367-5570

776-8512

페더럴웨이

수, 금(10시7시)

838-3180 시애틀

927-4996 타코마

정문언보험 FARMERS INSURANCE  
9525 AURORA AVE. N.  
SEATTLE, WA 98103  
(206) 523-9111 • (206) 588-0611

황수철 부동산  
NORTHEND 및 BELLEVUE 지역  
522 - 7566

##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역성촌한인루터교회 김동진 목사

이 물음은 누구나 다 알고 싶어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신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신아닌 영혼도 육신과 같이 공존한다고 할 때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과 더불어 영혼을 또 주시사 사람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한 것입니다.(창세기2장7절참조)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공기가 보이지 않으니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가 있다는 산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이지 않기에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께로 부러 온 것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수명이 다하는 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않더라도 내 수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의 생명까지를 창조하신 까닭입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 주인의 말을 듣드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의 말씀따라 살아야 합니다.

## 법률 상식

## 비자의 종류와 변경 방법은?

미국은 현재까지도 <이민의 나라>로 불리고 있다.

해마다 비이민 비자신청자중 상당수가 영주권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고 있다. 어느 누구든지 방문비자나 상용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은 미국에 영주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갖게된다. 미국정부 이민법에 의해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경우는 첫째 무순위 비이민자로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체류가 가능한 것이며 둘째로 이민비자를 받아 정식으로 장기간 영주할 수 있는 경우이다.

위에 기술한 두가지 경우의 근본 차이점은 미국의 체류기간이 일정기간에 한하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이다.

우선 미국에 B-1 상용비자나 B-2 방문비자에 의해 입국한 일시 체류자는 F-1 학생비자, H-1, H-2, H-3인 일시적 일할 사람, E-1, E-2인 협정투자자나 무역업자, L-1 지사파견비자 등의 비이민비자

로 바꾸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미국의 체류기간이 최소한 60일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와같이 비이민 비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비자를 갱신하려면 각자 자기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알맞는 것으로 하된다.

두번째는 미국에 영주하는 경우로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 직계자녀 형제자매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미혼자녀 등이다. 이러한 경우로 수속을 밟을 경우다 큰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들고 손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다. 기타의 경우는 노동청의 허가를 얻어 진행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사람의 임금이 적당하고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의 학예특기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기와 경험이 많으면 다른 어떤 종류의 비자보다 빠르고 쉽게 비자를 얻을 수 있다.

**김병관 부동산**

- 사업체 및 주택  
압선해 드립니다.
- 투자안내 및 상담환영
- 성심껏봉사 하겠습니다.

집 ☎ (206) 745-1367  
사무실 (206) 365-4700

**한스 안경원**

- 안과 처방에 의한 안경 및 콘택트 렌즈
- Appointment에 의한 정확한 시력검사
- Medicare 및 직장건강 보험의 vision care service
- 품질을 보증하는 고급안경테 및 렌즈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B)363-5007, (H)362-8330

- \* 결혼식
- \* 장례식
- \* 각종 축하 화환
- \* 그린 프렌즈
- \* 전화 (525-7422) 만 주시면 언제든지 배달해 드립니다.

**University Village FLORIST**

## 교포사회

### 소식 및 동정

#### 므스칸토 (MUSCANTO) 회사

한국 학생 장학금 \$8,000.00 마련  
-시애틀 지역에 전례없는 자선사업-

한국인 사장 호 씨가 경영하는 벨뷰시내의 므스칸토 (MUSCANTO INCORPORATED) 는 지난 수년간 한국에 목재를 주로 수출하는 이지역 회사로서 경영주 호씨의 착실한 경영으로 그간 번창하여 왔었다. 금번에 한인사회에 자선 기금 \$10,000.00을 회사할 것을 한인회에 의뢰하여 왔으며 호사장은 이기금을 주로 한국학생 장학금에 사용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중 \$8,000.00을 장학기금에 쓰고 \$2,000.00은 한인회의 지역사회 봉사기금에 보태어 주도록 요청한 것이 그 내용이다. 므스칸토는 앞으로 매년 같은 금액 및 그이상을 한인사회에 계속 회사하여 이 장학기금을 계속한다.

회사를 대표하여 이계안을 직접 가지고 온 Kevin Horn (총지배인) 씨는 이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워면서도 착실하고 장래가 유망한 한국학생을 선발하여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이돈이 쓰여지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Horn씨는 과거 한국에 Peace Corps로 봉사하였으며 한국 부인 웬디씨와 착실히 살고 있다.

한인사회에서는 이 고마운 뜻에 보답코져 지난 7월 6일 이사장단과 회장단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1) 한인회내에 지속성있고 순수성이 있는 므스칸토 장학생 선발 위원회를 조직하고 2) 장학생 선발기준을 작성하여 이사 임원공동회를 통과한 뒤 므스칸토회사와의 정식 합의하에 「므스칸토 한국학생 장학회」를 발족시키기로 하였다.

한인회는 현재 선발위원회 정관과 선발기준을 초안중에 있으며 장학기금 인수시에는 이지역 교민과 여러 단체와 관계요로에서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가질 예정이며 많은 교포의 참석을 요망하고 있다.

#### 광복절 기념행사

1984년도 광복절 기념행사를 아태일시 및 장소에서 거행할 예정이오니 교민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1984년 8월 11일 (토) 오전 10:00  
장소 : 한인회건물강당  
주소 : 2611 125th St. N.E.  
Seattle, Wa. 98125  
(206) 362-4500

#### 시애틀, 라코마, 밴쿠버

#### 친선야유회 성황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시애틀, 밴쿠버 양개도시 한인교민 친선야유회가 금년에는 라코마 교민까지 합쳐서 3개도시가 참가하여 지난 7월 7일 밴쿠버의 STRATHCONA PARK 에서 성황을 이루었다. 작년에는 시애틀에서 주최하였고 금년에는 밴쿠버에서 주최하였는데 밴쿠버 한인회는 임종근 회장을 중심으로 전 교민들이 합심하여 야유회 및 친선경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축구, 배구, 정구, 씨름 등 모든 경기 진행과 야유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경기의 종합전장은 밴쿠버, 시애틀, 라코마 손으로 되었음. 행사를 주최한 밴쿠버 한인회 및 교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드리며 시애틀 지역에서 원거리까지 많은 교민들과 선수들이 참석하여 주셨고 특히 정구협회에서 많은 선수들과 가족들이 참가 하였었다.

## 해양대학 실습선 "한바다호"

### 시애틀 방문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 해양대학 84년도 졸업생 188명이 원양실습 항해중 시애틀을 방문 하였다. 시애틀 한인회, 라코마 한인회, 시애틀 기독교 연합회, 라코마 부인회, 주시애틀 총영사관, 해양대학 동창회 등 많은 단체 및 기관들이 "한바다호 환영 준비위원회"를 구성 범 교민적으로 환영행사를 마쳤다. 7월 12일 오후 1시 "한바다호" 선상에서 환영식을 거행하였는데 이 자리에는 환영위원장, 안세훈 총영사, Mrs. Dunn 시애틀 국제친선 위원회장, Mr. Ford 시애틀시 항만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오후 6시에는 민병언 실습감독 6명이 시애틀 한인회를 방문하여 해양대학 신민교 학장을 대타하여 감사패를 전달한바 있으며, 이어서 오후 7시부터는 한인회가 주최하는 환영만찬에 참석하였다. 시내 한일각에서 베푼 이 만찬에는 20여명의 해양대학교수 및 교관진, 선장 및 기관장들과 50여명의 교민들이 참석하여 환영해주었다. 7월 13일에는 시내 우드랜드 공원에서 야유회를 가진바 있는데 실습생들의 해경도 시범과 농악 및 가면춤이 있었고 시애틀을 축구림과 "한바다호"함의 친선축구경기등이 있었다. 한바다호에서는 교민들의 환영에 대한 답례로서 교민초청 만찬을 한바다호 선상에서 베푼었는데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나게 했다. 7월 14일 오전 10시에 교민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빅토리아를 향하여 시애틀항을 떠났으며 환송 교민들의 손에는 해국기와 성조기가 한바다호가 멀어질때까지 내려지지 않았다.

#### 대한선주(KS Line)

#### 운항선박 증가

미국과 극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화물선박을 운항하여 해운사업에 크게 이바지하는 대한선주(Korea Shipping America, INC) 는 사업의 발전과 사세의 확장으로 오는 9월부터는 현재의 5척에서 11척의 선박을 운항할 계획이라 합니다.

## University Village 꽃집

- University Village에서 정오 Nuhse 와 김정희 자매가 꽃집을 차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축하화환, 그린프렌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고민들이 전화만 주시면 신속히 배달합니다. 전화(206) 525-7422
- 동양꽃꽂이를 김인순, 전선미 꽃꽂이 선구자 김원정씨 등에게서 사사받음.
- Southend Florist 에서 10년간 디자이너로 일했음.
- Longview Lower Columbia College 에서 5년간 동양꽃꽂이 강의.
- Longview 에서 3년간 꽃집경영.

## U.W. 한국 학생회 소식

- 금번 U. W. 한국 학생회는 새로운 회장단 (회장, 이상철, 부회장, 심형섭)을 선출하고 9개부의 임원을 개선하여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 대내적으로 회원 각자의 성장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인 학생과 한국인 문화를 U. W. 교내와 지역사회에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7,000의 예산을 기본으로 하고 세웠는데 이러한 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관심과 협조를 바라고 있다.
- 충실한 대내의 활동을 통하여 U. N. 총학생회에 가입하므로써 대학당국의 협조를 받아 원만한 한국학생 활동을 앞으로 추진할수 있기를 84년도의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 HOME AND STREET SAFETY

## 가정 및 거리에서의 안전

이 책자는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강도, 폭행, 도난 또는 그밖의 범죄들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들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 여기에 옮겨 대치한다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거의 모두가 기회가 주어진다고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범인들은 가장 쉬운 시기와 기회를 포착하여 귀찮음을 느끼고 빼앗아 갑니다. 잠겨있지 않은 창문은 도둑을 초청하는 것과 같으며 걸레 놓여진 핸드백은 낚시기를 불러드리고 맙니다. 이것이 기회만 만들어 주지 않는다면 범죄의 발생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위급한 사태에 빠졌거나 범행의 현장을 목격했다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체없이 다이얼 911을 돌려 즉각 경찰에 알려 주기를 바랍니다. 시야를 경찰은 언제나 여러분의 지역 사회의 벗이며 어떠한 위급사태에도 신속히 이에 대응한다는 것을 잊지말기 바랍니다.

위급시에는 언제나 다이얼 911을 잊지 마십시오.

# 9-1-1

# A PERSONAL AND STREET SAFETY

## 개인을 위한 거리에서의 안전규칙

1. 친구와 함께 걷는 법 - 혼자 걸을 때의 위험방지법
2. 낚시/소매치기. 만일 강도를 맞아 지갑을 강탈하려 할 때 강도의 범행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현금은 강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게서 강탈 유혹제가 되므로 큰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피하여야 하며 그 대신 수표(체크)나 크레딧카드를 이용하십시오.

This booklet offers suggestions on how to protect yourself and your family against robbery, assault, residential burglary and other crimes. We all think about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victim, but there's no need to be tormented by it.

Most crimes are crimes of opportunity. A typical criminal is looking for an easy way to get something of value. An unlocked window invites a burglar. A dangling handbag invites a purse snatcher. If you eliminate the opportunity, you can avoid the crime.

If you have an emergency, witness a crime or are a victim of a crime, please call the police at 9-1-1. Remember, the police department is a friend of the community and will respond quickly to any emergency.

**IN CASE OF EMERGENCY,  
DIAL "9-1-1"**

1. Use the "Buddy" system — walk with a friend.
2. Pursesnatch/Pickpocket: If a robber tries to take your wallet or purse, let him have it. You do not want to take the risk of being harmed by the robber. Cash is a strong temptation to the potential robber, so try to avoid carrying large amounts of cash. Use checks or credit cards instead.

연드  
여자의 경우: 지갑이나 핸드백을 손이 가지고 다니는 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습관의 것입니다. 현금은 속옷에 끼거나 신발, 장화, 또는 코트 안주머니에 간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갑이 그 때 필요할 때에는 손에 단단히 쥐고 몸에 가까이 가지고 있도록 하여 옆에 걸레 놓여드리거나 하여서는 안됩니다.  
남자의 경우: 지갑은 바지 앞주머니나 코트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현금은 돈끼우개 (Money Clip) 에 끼우는 것도 편리합니다.

3. 거리의 보행은 항상 밝게 조명된 거리를 선택하며 어두운 곳이나 숲을 피해야 합니다. 으스스한 지름길이나 공원 동지를 통과하지 말것입니다.
4. 다른 사람 앞에서 현금을 보이지 말것이며 쇼핑할 때나 은행 출입시에 주의할것입니다.
5. 으스스하고 레연한 자세로 보행하되 경계를 잊지말것.

# B SAFETY IN THE HOME AND APARTMENT

## 가정집과 아파트에서 일어날수 있는 범죄에 대한 안전규칙

1. 견고한 자물쇠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할것. 문에 달는 자물쇠 중에서 가장 안전한것은 빗장식 자물쇠 (Dead bolt locks) 입니다. 절도범이나 강간범들은 대개 문이나 창문이 허술했을 때 침입하고 있습니다.
2. 열쇠를 잃었거나 도난 당했을 때는 열쇠 수선인으로 하여금 열쇠 장치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여분의 열쇠는 절대 집밖에 숨겨두지 말고 믿을 만한 이웃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밤이나 낮이나 당신집의 주소가 길에서 확인될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의 번호가 문에 잘 표시 되어야 합니다. 그 때야만이 위급시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당신있는 곳을 쉽게 찾을수가 있습니다.
5. 저녁에 외출할 때에는 집내부의 전등 두세개쯤 켜두어서 집에 사람이 있다는 인상을 주도록 합니다.
6. 어른 부재시에 어린이나 예보는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어린이만이 집에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것입니다.
7. 외부의 사람이 긴급한 일로 전화를 빌려쓰자고 하면 당신이 대신 걸어 주겠다 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문을 열어주거나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됩니다.
8. 집에 돌아왔을 때에 이미 누가 침입한것이 의심 될 때에는 집에 들어갈 생각을 말고 이웃집에 가서 경찰을 부르는것이 좋습니다.

**TIPS:**  
Women — Carrying a purse is a habit rather than a necessity. You can pin money to inner clothing, place it in a shoe or boot or carry it inside a coat pocket. If you want to carry a purse, hold it firmly and close to the body — never dangling at the side.  
Men — Carry your wallet in the front trouser pocket or vest pocket. Money clips are convenient for cash.

3. Walk on well-lit streets and stay clear of shrubbery. Don't take any shortcuts through alleys, parks, etc.
4. Don't display your money in public; be cautious when shopping or banking.
5. Walk with confidence — be alert, be aware.



1. Install secure locking devices and use them. The best locks for doors are well-made "dead bolt" locks. REMEMBER: Burglars and rapists can get in through unlocked doors and windows.
2. If your keys are lost or stolen, have your locking devices rekeyed by a locksmith.
3. Do not leave an extra key hidden outside. Have a trusted neighbor keep one for you.
4. Make sure the address on your house can be seen from the street during the day and at night. If you live in an apartment complex, your apartment number should be posted on the door. This will make it easier for the police to locate you in an emergency.
5. When going out for the evening, leave a few interior lights on to give the impression that someone is there.
6. Children and babysitters should take phone messages without indicating that they are alone.
7. If anyone asks to use your phone to make an emergency call, tell them you will make the call for them. DO NOT OPEN THE DOOR or let them into the house under any circumstances.
8. If you suspect that your home or apartment has been broken into, DO NOT ENTER. Go to a neighbor's home and call the police.



취급업무: 의료적치료, 위기상담, 성격학대를 받은 어린이와 그의 가족, 강간피해자 및 상해를 받은 여자들에 대한 옹호와 상담

Crime Prevention Division  
Seattle Police Department  
610 3rd Avenue  
Seattle, Wa. 98104 전화: 625-5555

(씨애틀경찰국 범죄예방과)

업무시간: 7:00-5:00 월-금요일

취급업무: 범죄 예방에 관한 정보의 권령물을 제공하며 직원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여 상황을 조사한 후 도난, 기약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또한 주민들에게 이웃 감시반의 조직을 지도하며 상업활동의 안보 조치를 도와주고 범죄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도 실시한다.

Victim/Witness Advocacy and Referral Project  
Seattle Police Department  
Smith Tower, Room 205  
Seattle, Wa. 98104 전화: 625-5310

업무시간: 8:00-5:00 월-금요일

취급업무: 강도나 폭력범죄의 강력범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임시거처, 재정적 보조, 피해자보상, 의료상의 치료 및 기약의 지원 서비스의 제공.

Services: Provides medical care, crisis counseling, advocacy and other supportive services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their families, rape victims and battered women.

CRIME PREVENTION DIVISION/  
SEATTLE POLICE DEPARTMENT  
Phone: 625-5555

City of Seattle  
610 3rd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4

Office Hours: 7:00-5:00 PM,  
Monday thru Friday

Services: Provides information and literature on crime prevention. Staff persons can come to your home or apartment to inspect it and make suggestions on how to secure your home against burglary and other crimes. Also, assists residents in organizing neighborhood Block Watches, conducts security surveys for businesses and provides a variety of public education services in the area of crime prevention.

VICTIM/WITNESS ADVOCACY and  
REFERRAL PROJECT  
SEATTLE POLICE DEPARTMENT  
Phone: 625-5310

400 Yesler Building, Level 1A  
Seattle, Washington 98104

Office Hours: 8:00-5:00PM,  
Monday thru Friday

Services: Provides victims of violent crimes such as robbery, assault, etc. with counseling, emergency housing, financial aid, victim's compensation, medical aid and other supportive services.



Charles Royer, Mayor of the City of Seattle  
Patrick S. Fitzsimons, Chief of Police  
Asian Community/Seattle Police Relations Task Force  
Jacqueline Toma, Project Co-ordinator  
Printed courtesy of SAFECO INSURANCE COMPANIES  
Graphic Design by Y & Company.

Korean

**세계피아노사**  
365-5540  
11325 Roosevelt Way N.E.  
Seattle, WA 98125

## K.P. 번역원의 프로페셔널 봉사안내

K. P. 번역원은 지난 10여년동안 미연방법원, 이민국, 각 카운티 및 시법정, 주요정부기관, 공공 및 사설 단체, 수 많은 법률회사들 그리고 언어장애로 고통을 받는 교민들의 의뢰를 받아 1천여건이 넘는 번역, 통역 및 갖가지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봉사를 제공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장기간의 경험으로 얻은 전문지식을 토대로 본 K. P. 번역원은 1984년 4월 부터 씨애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새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 최신사무능력을 갖추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해결 해 드리고 있습니다.

K. P. 번역원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분야의 봉사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 \*번역·서류작성 - 계약서, 증명서, 보고서, 신청서등 법률문서를 포함하는 모든 서류.
- \*통역 - 형사·민사·이민 법정, 수사기관, 병원 등 모든 공·사립기관 단체
- \*변호사선정 및 법률문제 해결보조 - 이민, 민사, 형사사건, 가정문제, 청소년 문제, 회사설립, 파산, 상속, 유언, 매매계약 등 모든 법률문제, 사고·사건처리에 관한 상담 및 조사.
- \*ESCROW 봉사 - 부동산, 사업체 매매 계약 및 ESCROW 업무.

위와같은 봉사에 대하여 일의 내용에 따라 시간당 \$30~50정도의 저렴한 봉사료를 받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 많은 경비와 시간을 낭비하시는 분들에게 빠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이득을 드리는 것이 저희 K. P. 번역원의 목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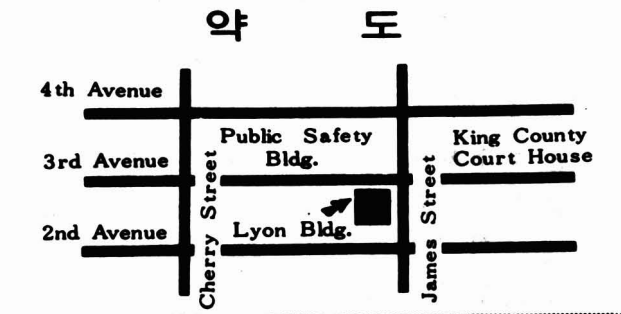
무엇이든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시간: 월~금 9:00 a.m. ~ 5:00p.m.

## K. P. Translation Services

### K. P. 번역원

Suite 303 Lyon Building  
607 Third Avenue  
Seattle, Washington 98104  
(206) 682-3480



\* 3rd Ave.와 James St. 교차로 서북코너에 있는 Lyon Bldg. (씨애틀 시 법정 맞은편 건물) #303호실

## 치과 의사에게 문의 하세요

이영주

문 : 후로라이(Fluoride)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지요?

답 : 후로라이란 자연계에서 거의 어디에서나 자연수에서 까지도 찾아볼수있는 화학원소 중의 하나입니다. 후로라이드는 치아의 제일 겉층을 이루고있는 에나멜층과 작용하여 우리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에 의하여 생산되는 산(acid)에 큰 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충치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후로라이드를 적용한 Group 과 후로라이드를 적용하지 않은 Control Group 을 비교하면 후로라이드를 적용한 Group 이 약65-70%가량 낮은 충치의 충치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사실이 발견된 이후에 치약에도 또 우리들이 늘상 마시는 상수도에도 후로라이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 : 우리들이 매일 아침 쓰고 있는 치약의 단맛은 어떻게 나는지요?

답 : 치약의 단맛은 설탕이나 사카린을 쓰는게 아니고 충치를 유발 시키지 않는 단맛을 내는 소비톨(Sorbitol) 이라는 Sweetner 를 씁니다.

문 : 껌(Gum) 을 많이 씹으면 치아가 많이 닳는지요?

답 : 일년 혹은 이년이라는 짧은 기간이면 괜찮습니다만 껌 씹는 버릇이 있어서 평생 씹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만 닳는것이 아니라 턱뼈의 관절에도 무리가 가서 턱뼈가 변형이 되거나 염증을 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문 : 음식을 먹은후 얼마나 빨리 이를 닦는것이 좋은지요?

답 :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때는 곧, 보통 15분안에 치아를 닦아주는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근래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하루에 한번 이와 잇몸을 칫솔과 Floss 로 잘 닦아주면 매 식사후에 칫솔질할 수고를 덜어 준다고 합니다.

문 : 보통들 말하는 Tooth Faisy 란 말은 어디서 또 언제부터 나온 말인지요?

답 : 아는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5-7살이 되면 유치(젓니)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가 빠지면 갑자기 아이들이 보기 흉하게 됩니다. 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여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재치있는 부모가 Tooth Faisy 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어 조그마한 장난감이나 캔디를 살수있는 돈을 아이들이 잘때 베개 밑에 넣어 줌으로써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며 새이가 또 나온다는 희망을 준데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문 : 칫솔은 부드러운것, 중간것 혹은 딱딱한것 중에 어느것이 제일 좋은지요?

답 :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부드러운 칫솔을 추천합니다. 칫솔질할때에 꼭 이만 닦는것이 아니라 이와 잇몸과의 경계선, 또 이 위에 있는 잇몸도 가볍게 눌러주는(맛사지하듯이)방법을 추천합니다.

문 : 사랑니(혹은 Wisdom Tooth)란 어떻게 해서 나온 이름인지요?

답 :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막니라고 하는데 우리의 입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난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가 나는 시기는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할때쯤 즉 17-20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를 린에이저라고도 하는데 이때쯤 되면 지혜(혹은 사랑)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때 나는 이를 사랑니 혹은 Wisdom Tooth 라고 합니다. 보통 아랫의 양쪽 4개가 나는데 나자마자 뽑아주는것이 구강관리에 좋습니다. 간혹 어떤사람은 3개, 또는 2개나 1개 또 사랑니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니가 안난다고 그사람을 지혜(혹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 하바 하바 비데오 및 사진관

비데오테이프 대여

각종 한국영화 · 연속극 · 시극 · 코메디  
및 다양한 프로

존경하는 교포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83년도에도 많은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돌아오는 새해에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 바랍니다. 성심 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5610 SO. YAKIMA AVE. TACOMA, WA. 98408 TEL: (206) 475-6226

●출장 촬영 환영●

결혼 · 약혼 · 돌 · 회갑사진  
영주권 · 여권 · 시민권사진  
각종연회 및 파티사진예약  
받습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여행안내  
장여행사  
C AND C TRAVEL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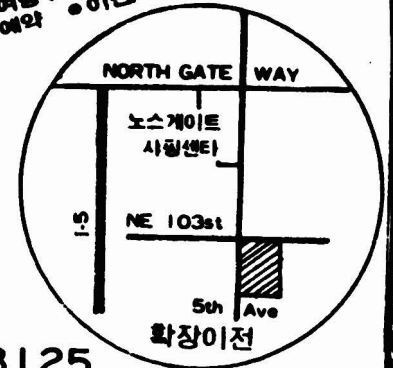
IATA, ATC, PATA 회원

●국내외 항공관매(일부도 가능)  
●시민권 신청서류 작성  
●각종 번역일 용역  
●항공 보험  
●각종 여행수속  
●호텔 렌트 키 예약  
●이민 법률 안내

523-7057

\* 24시간 \*

10212 5th Ave. NE #220 SEATTLE, WA 98125



# Kyung Hak Yu

Violinist

유경학 양 바이올린 독주회

BEVERLY HAMWAY, PIANIST



- \* 1984년 6월 줄리아드 음대 졸업 (4년에 학사 및 석사)
- \* 최근 카네기 리사이틀 홀에서 뉴욕 데뷰 단독연주회;  
뉴욕 타임즈 음악평론가 "Gifted Young Artist" 라 절찬
- \* 씨아틀 심포니와 협연 3회 (당시 14세)

작품 연주 예정

Bach, Brahms, Sarasate, Chopin-Milstein, Ravel

참조금: \$ 5.00

3:00 P.M., SUNDAY, AUGUST 26, 1984

BROADWAY PERFORMANCE HALL  
1625 BROADWAY  
(SEATTLE CENTRAL COMMUNITY COLLEGE)

## 구인광고

시애틀 한인 학교 시간제 교사 모집

시애틀 한인 학교에서는 시간제 교사 약관명을 아래의 요령으로 채용 하오니 희망자는 응모하여 주십시오.

- 교 사 : 1. 한국어 교사 0명  
2. 서예지도 교사 0명

근무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8시30분 (2시간상당) \*시간당 \$10.00 혹은 그 이상

- 자 격 : 1) 정규 사범학교 졸업 및 동등의 자격 2) 교사경험 유  
3) 한국어와 영어에 능숙

요 령 : 이력서 1통 (사진첨부)을 1984년 8월 21일 오후 4:00 이전으로  
다음주소로 도착할수있게 하여 주십시오.

Seattle Korean Community School  
2611 125th N.E. St.  
Seattle, Wa. 98125

(현 시애틀 한인회 사무실임)

\* 자세한것은 522-2494 나 365-4128로 문의 하십시오.

시애틀 한인 학교 장

DENTIST

**치 과**

PHONE 778-0707

**RONALD D. CANTU D.D.S.**  
치과의사 로날드 D. 켄투

6226 BUILDING SUITE 2-A  
6226 196TH S.W.  
LYNNWOOD, WASH. 98036

이 광고를 지참하시는 한인에게  
15%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15% off**

**각종 영문 및 한글 인쇄  
린우드인쇄소  
(206) 775-7667**

— AUG. SALE —

<b>Business Card</b>	<b>\$12.95</b>
<b>Letter Head</b>	<b>\$13.50</b>
<b>Envelope</b>	<b>\$22.50</b>
<b>500 each</b>	

정성드려 인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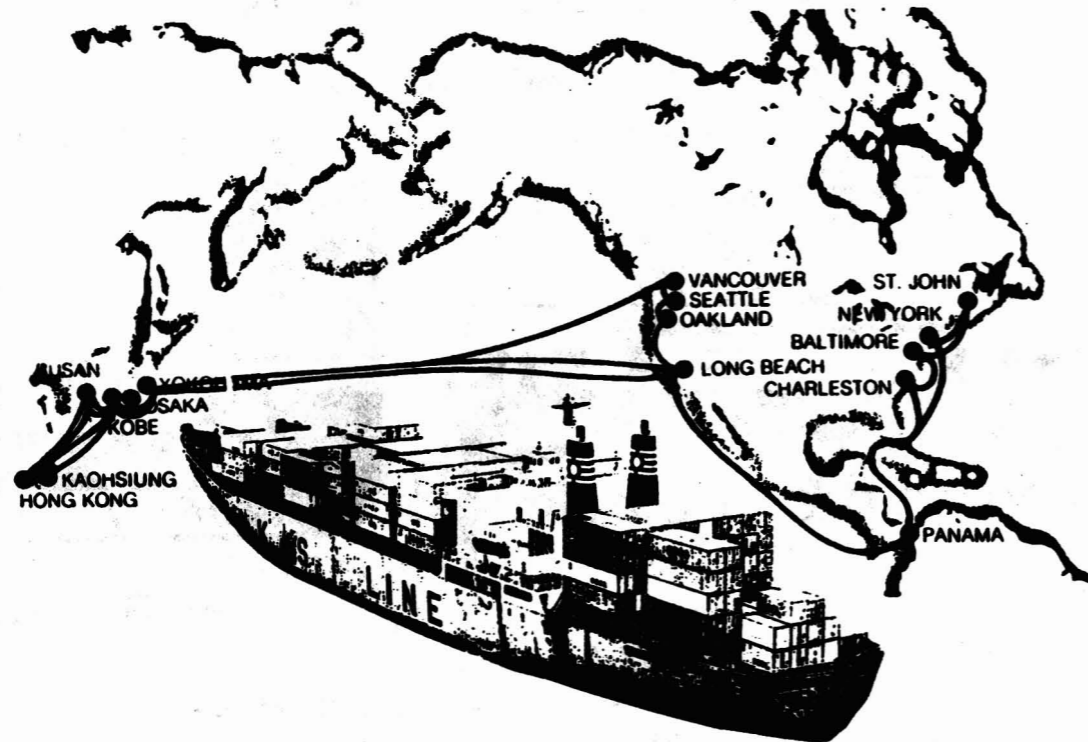
한국 해운의 기수

**K.S. LINE**

- 수출입 화물
- 귀국 이삿짐
- 창고업
- 통관업무

미국과 동남아를 6일 간격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귀택의 이삿짐은 부산·서울 편리한 곳에서 14일만에 통관, 찾으실수 있습니다.



(206)625-1960

2121 Fourth Avenue Suite 2250 Seattle WA 98121



大韓船洲(株)

KOREA SHIPPING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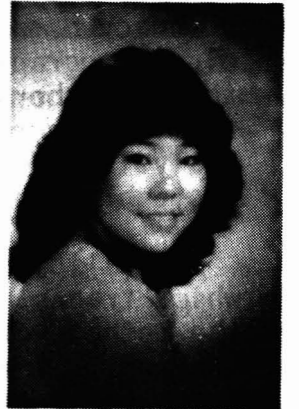
동비치 지점 (213)437-8431  
 뉴욕 지점 (212)422-8950  
 샌프란시스코지점 (415)777-2000  
 시카고 지점 (312)883-7500  
 휴스턴 지점 (713)227-3261

덴푸버사무소 (804)688-2438  
 포틀랜드사무소 (503)228-8818  
 볼티모어지점 (301)727-3559  
 알스콘지점 (704)365-4582

**YOUTH COLUMN**

**I'm Proud To Be A Korean**

By Mira Hwang



Looking down from the window of the plane as we approached Kimpo International Airport, I was filled with emotion. My family and I had left Korea when I was three years old, and fifteen years later I was finally returning to my motherland. Having no memories of Korea, I felt as if I was traveling to a foreign country, but I discovered that despite the fact that I was raised in the United States, I was still very much a Korean.

The moment I stepped onto Korean soil, I felt right at home. I was a Korean surrounded by other Koreans, and all the work I had put into maintaining my Korean speaking abilities paid off, for I could communicate with ease, and communication is crucial to understanding and being a part of the Korean culture. My relatives and I exchanged valuable information and knowledge; they were eager to hear about my life in the United States and I was just as eager to hear about their lives.

I not only felt at home in Korea because I could communicate effectively, but whil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 had been taught much of the Korean traditions and customs. Respecting elders and properly greeting people was just a regular part of everyday life for me, and knowing about the Korean holidays, fairytales, food, and the many little things that make up the Korean culture helped me to understand the Korean way of life.

My trip back to Korea was very rewarding, for it brought about the realization that I have the best of two worlds. All Korean-Americans should take advantage of this by holding onto the Korean traditions and customs, and most of all, by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This is not always easy, but all the hard work will pay off and I know, for I am truly proud to say that I am still very much a Korean.

A Call  
For the Formation of a  
Historical Society of Koreans in Washington State

By Daeshik Yu

"A Place Called Chinese America" is a history book proposed and sponsored by the Organization of Chinese Americans, Inc., a national advocacy organization of concerned Chinese Americans. While numerous old photographs illustrate the moments of historical significance, the co-authors Diane Lin Mark and Ginger Chih's narration unfolds the two-hundred year Chinese American history interwoven with succinct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e 192-page history of Chinese in America was published in 1982.

"Filipinos: Forgotten Asian Americans" is another history book which traces the lives of Filipino Americans from 1763 to 1963, combining the methods of oral histories, photographic illustrations, and interpretive analysis. The contents of this 235-page pictorial essay were made possible by the Demonstration Project for Asian Americans' "Forgotten Asian Americans: Filipinos and Koreans," a history project funded by a grant from the Division of Special Programs of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This book was published in 1983.

I understand that a book on the history of Japanese Americans in Seattle is now being written, and the project is funded by the Japanese American Citizens League.

These are just a few examples of how busily our fellow Asian Americans are engaged in writing their histories to let the world know about their heritages and achievements in the United States.

Publication of a comprehensive history of Koreans in Washington State is one of the urgent tasks that faces us, and as an effective way of carrying it out, I propose that we form a historical society of Koreans in Washington State, in which concerned members of the Korean community organizations such as the Seattle-Washington Korean Association, the Korean Society of Tacoma,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of Tacoma, and other religious and social service organizations work together in pooling information and materials and writing our history.

According to a 1980 report of the Washington State Commission for Asian American Affairs, the Korean population in the state showed the most phenomenal growth--a 652 percent increase from 1970 levels and a 150 percent increase from 1976 figures--to reach a total of 15,000 in 1980. But our community leaders unofficially estimate that the actual number is twice as high. As the Korean community continues to grow rapidly, our fellow Washingtonians are increasingly interested in understanding why we come, how we live, what we are contributing, and how we view our past, present, and future. Thus, there is an immediate social need for us to write our history and with it help

our fellow Washingtonians understand the ways in which we adjust to and leave our mark on the life of Washingtonians.

There is also a crying need in academic circles for such a history. Since its beginnings in the 1970's, Asian American studies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major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ffering courses on the history, culture, literature, and contemporary issues of concern to Asians in America. As an important group among Asian Americans, the Korean community has a vital role to play in developing Korean American studies into a full-fledged discipline, for its subjects are none other than the various aspects of Korean immigrants' lives.

Finally, there is that instinctual need in all of us to leave the records of the way we have lived for our offspring, telling them about how we participated in making history in our own generation. Perhaps, it is this instinctual need to account for ourselves by ourselves that brought about the familiar axiom we are fond of citing: "A tiger leaves its hide behind whereas a man leaves his name."

Despite these urgent social, intellectual, and instinctual needs for it, we have yet to write the history of Korean experiences in Washington State. Most of our fellow Washingtonians are unfortunately living in a dark age as far as the history of Koreans in Washington State is concerned. For that matter, most of us Koreans are not any better off, either. Only a couple of months ago, a student who wished to write a term paper on the history of Koreans in Seattle could find virtually no information except for two pages of narration included in an autobiographical sketch at the end of Koreans in America (1979) by Bong-Youn Choy. Without any doubt, Choy's book, along with a few others like Warren Kim's Fifty-year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1959) and Korea-U.S.A. :1882-1982 published by Yonhap News Agency in Seoul, is an indispensable work in the general history of Korean Americans.

When it comes to the subject of Koreans in Washington State, however, these books do not help much. I suggested to the student that some of the essays, editorials, and articles appearing in the Korean language newsletters of community organizations might be useful in writing her paper on the Koreans in Seattle, but they could not help her, either, because she did not read Korean. Some of the writings in newsletters do indeed represent the history of Washington State's Korean community in the making, but they are limited to a Korean reading audience and remain unknown even to the children of the writers, not to mention the larger community of the English reading public.

Those of us wh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our heritage owe it to ourselves to define what form and shape our heritage takes for the sake of our children. The longer the task of writing our history is delayed, the greater the chance of our being misunderstood and misrepresented by those in the mainstream of the Washington community just as we were unfairly portrayed by the Tacoma News Tribune articles in March 1983.

While we know all too well that constructive criticisms of our community by those who view it from the outside can help us put our acts together from time to time, we are also aware that we are attacked often for the wrong things for the wrong reasons. I submit that a solid and comprehensive account of ourselves for what we really are--a history to be written by the proposed Historical Society of Koreans in Washington State--can improve the situation, for it will give our friends and critics alike a proper frame of reference for their judgment of our values and our actions.

By way of inviting concerned members of our community to seriously consider the formation of the proposed historical society of Koreans in Washington State, I close by citing an oral history excerpt on the life story of the late Mr. Chang Hei Lee, the first president of the Seattle Korean Association established sixteen years ago in 1967. The excerpt is one of the many findings of research conducted by the Demonstration Project for Asian Americans on the history of Koreans Americans and it appeared in the DPAA newsletter published in September 1982.

Is it possible for us Koreans to pick up the thread of history where the DPAA has left off and complete the writing of our history initiated by our Filipino friends?

.....

"Chang Hei Lee"  
from the DPAA Newsletter,  
September 1982

Chang Hei Lee was a soft-spoken humble person noted for his generosity and understanding for students from Korea and those struggling for just and patriotic causes. His deep empathy rose from his own experiences of hardships as one of the early struggling Korean students in search of education in America. Lee, a graduate of Yunhi (now Yonsei) University, with three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in Korea, arrived in San Francisco to further his education. Soon after his arrival, he sought work in the farmlands to earn money for travel and tuition and survival.

"In Reedley I picked peaches then other fruits as they ripened . . . like grapes."

Physically frail. . . .

"though willing in spirit, the regular laborers would always let me take on jobs that were less strenuous. . . if I lagged behind in the fields, they'd help me by filling my crates and trays so I'd be able to put in my daily quota."

During the 8 to 10 hour day he earned 30 cents an hour. During this period Lee also taught Korean language to early first generation Korean Americans and participated in patriotic and social Korean activities of

his church in Reedley and Delano. Lee could barely make ends meet and had to seek work and schooling elsewhere. He met Chang, another student in the same economic plight in Atlantic Georgia. This fellow was more fortunate in that a sympathetic professor loaned him money and advised him to go elsewhere. Chang conceived the idea of opening a Chinese restaurant and giving employment to other Korean students as waiters and dishwashers. Lee worked there and attended college and by 1937 had earned three degrees from Vanderbilt University and Peabody College in Nashville, Tennessee. He had intended to return to Korea and had even purchased his boat fare, but the political climate in Korea, the war in Europe and increasing pressure by Japanese officials on Korean students in America made him postpone his return.

He remained in southern California. During World War Two he was hired to teach Japanese to university students. He became a chief translator for the U.S. Overseas Secret Service (OSS). Flown from Free China during the war, he gathered information from

"young Korean soldiers who had been draf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 . . had abandoned and escaped to Free China to join . . .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1946, when the U.S. occupied South Korea, Lee's wish to return to his homeland was fulfilled when he was sent as a translator. Through friends, he met his future wife, Kannan, and they returned together to Seattle in 1948. He taught Korean language and history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e worked as a chemist at Boeings and in real estate. He also was active in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until his death in 1979 at the age of 77. He is survived by his wife and their children, Alice and Victor.

End of the excerpt as it was carried in  
the DPAA Newsletter

.....

I repeat the question I raised at the end of my proposal for a Historical Society of Koreans in Washington State, a standing autonomous organization whose objective is to collect materials and information for the purpose of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mericans in the state of Washington.

Can we pick up the thread of history where our DPAA friends left off and complete the writing of our own history?

# 한인회보

표지의 『한인회보』 제자 :

한인사회를 위하여 헌신, 사랑, 겸양,  
술선수범으로 귀감이 되었던 고 이창희  
초대 한인회장의 생존시 휘호

한인회보 1984년 제6호  
발행인 : 오 계 회  
편집인 : 박 승 휘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2611-125th St. NE  
Seattle, WA 98125  
P.O. BOX 24992  
Seattle, WA 98134  
☎ (206) 362-4500

## 이 규 영 계 리 사

귀중한 재산을  
소중히 정리해드립니다.

- ※ 컴퓨터로 장부정리
- ※ 퇴직 연금 상담
- ※ 일반 인컴 택스
- ※ 세무상담
- ※ 중소 기업 장부정리
- ※ 공증업무
- ※ 기밀 절대보장

(206) 623-4181/3

2809-4th Ave Seattle, WA 98121

# 박화영

각종 표구 액자 전문  
서예 수예 동양화 평풍제작판매  
각종고급 서양화 특별엄가판매

※ 초상화 전화문의환영

## 간판

한글 한문 영문 아크릴 프렌카드  
각종 특수체 및 조각간판제작  
사무실 **762-5410**  
집 **242-6801**  
월~토 오전 9시~오후 5시

1515 Roxbery S. W. Seattle WA 98106  
(중앙식품 근처)

### 센츄리부동산 (206) 223-8949

400 BOREN AVE. SEATTLE, WA.

쌤 운 : 878-3647 이양남 : 363-0443  
수 산 김 : 392-8535 김일영 : 874-4452  
변종혜 : 775-6976 조 인 : 364-5966  
고 유진 : 771-3229

- \* Sandwich & Deli (Kirkland)  
165,000 - 65,000D/N 월매상35,000
  - \* Grocery Store  
(1) 139,000+INV. 5만다운. 월매상 4만이상  
(2) 150,000+INV. 8만다운. 월매상34,000  
(3) 40,000+INV. 2만다운. 월매상12,000  
(4) 49,000+INV. 월매상14,000 현주인 15년
  - \* Shoe Repair (현주인 20년)  
77,000 - 35,000D/N 월매상 5,000 이상
  - \* Candy & Card-Shop (Marysville)  
45,000+재고. 15,000D/N 년매상 8만
  - \* 채소 가게(주6일. 8-6P.M.)  
4만 + 재고. 월매상 17,000이상
  - \* Coffee Shop (6일)  
55,000 - 35,000D/N 월매상 2만
  - \* 세탁소 (건물포함 - 현주인 20년)  
195,000 - 70,000D/N 년매상 8만
- 기라 집 Listing 도 다수 있습니다.

## LEE'S 타이어 및 자동차 종합 정비센터



تون

머플러

타이어

브레이크

삭오브 서버

모두

트랜스 및송

완벽하게

고칩니다

프론트 엔드얼라인 먼트 (206) 362-4449

13281 AURORA AVE N. SEATTLE, WA 98133

### 린우드 TOPrin 인쇄소

- 청타시설회비, 각종인쇄물취급
  - 명함, 주부, 주소록, 각종간행물 제작
  - 청타란? (한글타자는 모양이없고 사진식자는 값이 비싸고, 이런문제를 청타가 해결해드립니다.)
- 5907 196TH S.W. 린우드 ☎ 775-7667

미국 생활에서의 법적문제 이해에 관한

세 미 나

한인회에서는 한인회를 위하여 오랫동안 수고하여온 크린튼  
(Gordon S. Clinton) 변호사와 공동 주최로 한국 고민들이 알아서야  
할 법적문제에 관한 일련의 "금요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갖이고자  
하오니 필요한 고민들은 참석하시어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 소 : 한인회 회의실

2611 N.E. 125th St.  
Seattle, WA. 98125

<u>시 간</u>	<u>제 목</u>	<u>연 사</u>
9월 14일(금) 오후 7:30분	영주권 소지자 및 H-1, L-1, F-1 및 기타 비자 소지자등 이민관계 문제	골든 크린튼
9월 21일(금) 오후 7:30분	주택 및 사업체 구입, 매매에 따른 문제점	어빈 데스메르
9월 28일(금) 오후 7:30분	여러가지 사업체의 종류와 운영에 관한 문제	키스 린슨

시 에 를 위 상 은 한 인 회  
Gordon S. Clinton 변호사 사무실

# 류종합보험

# Allstate®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가옥보험
- 건강보험
- 차 보험
- 사업보험
- 용자알선

언제나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류창명종합보험

사무실 : 364-2450  
자택 : 362-2510



립우드 TOPRIN 인쇄소

157가 AURORA NORTH의 SEARS 빌딩 내.  
민고 찾을수 있는 SEARS의 ALLSTATE를 찾아주세요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24992 o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 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No. 919

To: HAHN, MAN-SOP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

01146